

기선, 드루파서 진보된 후가공기기 공개

# 디지털 · 전통방식 인쇄물 폭 넓게 ‘활용’


디지털인쇄 후가공 장비 전문 제조업체 기선이 드루파2012를 통해 포토북 압축 제책기, 자동 오시 접지기, 서멀 라미네이팅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한다.

자료제공\_기선

기선이 선보이는 디지털인쇄DB-440은 기존 자동 포토북 압축 제책기인 디지털인쇄DB-350의 업그레이드 모델로서 제작사이즈가 360×380mm로 확대됐다. 인쇄물과 속지가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이중 급지장치 시스템을 장착해 안정된 급지와 기계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. 작업 크기 세팅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, 기계운영의 편의성과 기능을 보강해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작업이 안정될 수 있다. 기존 DB-350 모델이 디지털인쇄물 위주의 포토북 제작용이었다면 DB-440은 디지털인쇄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의 앨범제작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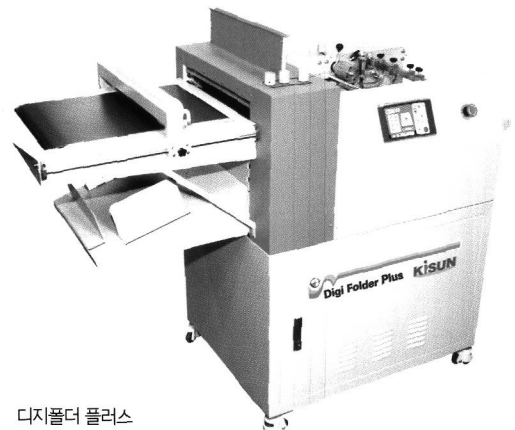
디지털 폴더 플러스DF-380은 자동 오시 접지기로서 7가지 형태의 접지를 오시와 함께 자동 프로그램 선택에 의해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. 오시와 접지를 구별해 이중으로 작업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없애고 생산성을 높였다. 디지털인쇄와 함께 사용할 경우, 포토북 생산성을 증가시킨다. 초청장, 카탈로그, 리플릿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하다. 고가인 수입기계의 대체품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커팅 장치를 추가하면 명함재단기 기능도 가능해 다양한 용도의 후가공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.

디지털라미DL-520AF는 기선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신 써멀 라미네이팅기다. 520×720mm 크기의 라미네이팅 작업이 가능하며, 일반 오프셋 인쇄물에서 디지털 인쇄물까지 적용 가능하다. 최대 특징은 토너와 왁스 성분이 함유된 디지털 인쇄물의 라미네이팅 시 필름과 인쇄표면의 접착이 어렵고 오시 작업에 발생할 수 있는 필름의 이형 현상을 해결했다는 점이다. 특수필름이 아닌 일반 필름을 사용해도 강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X-유닛 장치를 개발해 장착했다. 8개월에 걸친 개발기간과 테스트를 거쳐 드루파에서 최초로 공개하며, 동시에 국내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. 현재 해외에서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으면 주문도 상당이 이뤄지고 있다.

이 외에도 디지털UV 코팅기와 표지제작과 바인더 시스템인 디지털 케이스, 디지털 케이스인, 디지털 씨 테이퍼, 디지털 라운드인, 디지털 조인트 포머와 소형 부분 코팅기인 디지털 스팟 등이 소개된다. 



디지털인쇄 DB-440



디지털폴더 플러스



디지털라미